

##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에 따른 관계적 자기 인식\*

이혜영\*\*, 최연실\*\*\*

---

### ■ 국문초록 ■

---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영역에 따라 나뉜 유형별로 대학생이 경험한 부모화 경험의 특성,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서울 및 경기지역, 호남지역, 충청지역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71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통해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사용하여 부모화의 하위요인들을 토대로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하였고, 이 유형에 따라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은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보다 관계 윤리적 불공평의 수준이 다소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도구·불공평형', '정서·불공평형', '도구·정서형'의 3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어 각기 다른 특징을 나타냈다. 셋째, 부모화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은 '성별', '형제 수', '출생 순위', '부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현재가정형편', '부모와의 별거 경험 여부', '부모와의 별거 기간',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 여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부모화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된 집단별 관계적 자기 인식은 '관계의존', '공감-배려', '관계회피', '타인의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를 만나는 상담자가 그들의 특성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가족상담 및 치료 현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대학생, 부모화, 부모화 유형, 관계적 자기 인식

---

\* 본 논문은 상명대학교의 석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이혜영(주저자):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부모-자녀관계, 중년기 가족, 가족상담 등이다. E-mail: yhy111@hanmail.net

\*\*\* 최연실(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가족심리와 임상작업, 가족관계의 내적 역동 분석, 다문화가족, 한국가족의 변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mail: yschoi@smu.ac.kr

## I. 서론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출생 직후부터 혹은 태내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부모 자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 직후부터 성숙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의존적이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더욱이 한국문화에서는 ‘효’라는 명목 아래 어린 시절부터 부모나 형제를 과도하게 보살피고, 배려하는 아이를 이른바 ‘착한 아이’, ‘철든 아이’,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 ‘부모를 귀찮게 하지 않는 의젓한 아이’로 여겨 왔다(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2002). 그러한 이유로 보살핌의 행동들이 긍정적 평가나 보상을 받게 되어 실제 자녀의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자녀들도 자신의 행동이 전혀 불편하거나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모화(parentification)란 자녀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것과 반대로, 부모와 역할이 전이되어 자녀가 오히려 그 부모를 돌보고 위로하며 때로는 배우자의 역할까지 떠맡게 되는 자녀의 역할이 왜곡된 상태를 말한다. Boszormenyi-Nagy와 Framo(1965)의 연구와 Minuchin(1974)의 연구에서 이런 자녀들을 ‘부모화된’ 아이라고 명명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의 신체적·정서적 상태를 돌보며 부모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화된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이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오히려 일찍부터 의젓하고 유능하게 보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매우 적응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겪는 심리적 위험성이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제로도 부모화를 경험하는 아이들이 성장과정에서 뚜렷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이러한 가족들을 돌보는 경험이 아이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고양시켜 더 나은 성취를 보이게 한다는 뒤의 연구(Hooper, Marotta, & Lanthier, 2008)도 부모화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련된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타인에게 바람직하고 적응적으로 받아진다고 하여 그들의 정서 또한 건강한 것은 아니다. 물론 적정 수준의 배려는 그 자체로 적응적일뿐 아니라 심적 갈등도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무시한 강박적인 배려심이다. 강박적인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병리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무엇보다도 부모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지만 받지는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Jurkovic et al., 2001),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기 부모화 경험은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신주연, 2003), 대인관계 문제 영역 중에는 과배려성에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문비, 2006). 한편, 같은 대학생이라도 성별에 따라 부모화의 경험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정선(2011)의 연구에선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물리적 부모화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문비(200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부모화와 불공평 변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다. 또한 대학생 자녀가 경험한 부모화 정도가 높을수록 우울 성향은 높아지고, 자기위로능력이 높을수록 우울 성향은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다(이정선, 2011).

이처럼 실제로 임상장면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나 내담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이 가족을 포함한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이며(Horowitz, 1996), 심리적 장애의 대부분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해 야기되고, 대인관계의 문제를 유발하기도 한다(Horowitz & Vitkus, 1986)는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개인의 사회 심리적 성숙과 심리적 건강에 있어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권석만, 김지영, 2002에서 재인용).

이렇게 개인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영역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자기 개념과 함께, 관계를 통해 발현하고 성숙하는 관계적 자기 인식을 갖게 된다. 즉, 관계적 자기 인식이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역할과 지위가 무엇인지를 반성하는 것이다(방희정, 윤진영, 김아영, 조혜자, 조숙자, 김현정, 2007). 구체적으로 관계적 자기 인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받기, 관계에서의 주도성, 관계에서의 의존, 타인에 대한 공감-배려, 심리적이고 도구적 관계, 관계 회피, 타인 의식 및 눈치 보기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한다면, 타인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강화,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관계에서 빈번한 갈등을 경험할 수도 있으며, 관계를 회피하거나 관계에 의존하면서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양상을 보일 것이다(윤현수, 오경자, 2004).

Mead(1934)에 의하면, 자기는 사회와 자신과의 사회적인 경험의 산물로서 자기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타인에게서 비롯된다. 또한 Erikson(1968)은 특히 발달과업으로서 청년기 즉, 성인초기에 이르게 되는 시점인 21세부터 40세까지의 해야 할 주요 과업으로 자신의 정체감 확립과 가족 이외의 타인과 친밀한 관계 형성을 주장했으며,

타인과 개방적이고 지원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관계적 자기 인식은 개인이 태어나고 자란 '원가족'과의 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일생동안 지속된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원가족에서 경험한 부모와의 관계특성, 상호작용 방식이 일생 동안 가족 구성원의 믿음과 가치 및 대인관계 기술, 결혼생활, 가족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때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개인의 성장 및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관계적 자기 인식의 발달에는 원가족과의 관계가 자녀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원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부모-자녀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경험을 하는 경우 관계적 자기 인식의 발달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uillard, 1990, 최현미, 1997에서 재인용).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한계와 단점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인간 상호 간의 차이점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친밀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청년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생 시기에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통해 자기에 대한 개념 및 지위를 정의 하게 되는 관계적 자기 인식이라는 개념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부모화의 경험과 관계적 자기 인식의 영향력을 탐구하는 연구는 한국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부모화의 경험에 따라 자녀들이 인식하는 관계적 자기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부모화를 경험하는 자녀들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데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및 관계적 자기 인식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족기능의 여러 측면 중 강조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부분에 관해 시사점을 제공하며, 그들이 부모화 경험을 통해 관계적 자기에 대한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족치료 혹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하위요인)의 유형에 따라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탐구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은 어떠한가?
-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는 어떠한가?
- 셋째, 부모화 유형별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화

지금까지 부모화 경험에 관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은 부모화된 자녀가 보여주는 부정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부모화된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Olson & Gariti, 1993).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화된 자녀들은 약물남용에 빠질 수 있고(chase, Demming, & Wells, 1998), 대인관계 문제(Valleau, Bergner, 1995), 양육기술 문제(Boszormenyi-Nagy & Spark, 1973)를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부모역할로 어린 시절을 보낸 자녀들은 걸보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어린 아이로서의 기회와 정서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내적 공허함을 경험하게 된다(Teyber, 2006). 그리고 우울과 자기 비난, 낮은 자아존중감 등을 자주 경험하며,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화 장애를 경험하게 되고(Byng-Hall, 2002),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정신적 분열(splitting)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이들은 또한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여를 보이며(박상숙, 2009), 낮은 수준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보인다(Berman & Sperling, 1991).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불안이 유발되어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해야 하므로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Jurkovic et al., 1991).

부모화 경험은 대체적으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지만,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병리적인 문제를 가진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화 경험은 건강한 타인 배려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특성이 있으며(조은영, 정태연, 2005; Boszormenyi-Nagy & Spark, 1973), 부모화 과정이 없으면 성인기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 배우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부모화는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유익하고 필요하다는 주장(Hooper, 2007)도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은 대학생에게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적응적으로 대처하며 기능적으로 역할을 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안녕감을 증진시킬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부모화 개념의 맥락에서 타인과의 관계속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

는 관계적 자기 인식은 중요한 타인과의 맥락에서 경험한 속성과 역할에 기본을 둔 자기개념을 파악할 수 있기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족 내에서는 부모를 포함한 어른들은 양육하고 지도하며, 아이들은 수용하고 따르는 등 형태를 지니게 된다. 전통적으로 가족치료자들은 이를 '세대 간 경계'라고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구조적 가족치료 관점에서 보면, 성인과 자녀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을 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때, 자녀를 통해서 개인적 욕구를 채우려고 할 때, 많은 가정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가족에서 자녀는 과도하게 성인의 책임을 떠맡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게 되어 부모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처럼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현상을 '부모화(parentification) 현상'이라고 부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화는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부모를 보살피는 역할을 맡게 되는 부모·자식 간의 역할전이를 일컫는다. 이러한 부모화는 어린 시절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성인이 자녀를 통해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Boszormenyi-Nagy & Spark, 1973). 또한 부모화는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가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에 부모화가 생길 수 있다(Jurkovic, Jesse, & Goglia, 1991).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픈 부모를 돌보면서 부모화가 발달하기도 하는데, 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용하기도 한다(Bowlby, 1980). 부모화된 자녀는 도구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구체적인 대상은 가족의 역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Jurkovic, Thirkield와 Morrel(2001)은 부모화를 적응적인 부모화와 파괴적인 부모화로 구분했는데, 파괴적인 부모화는 보살핌이 상호 호혜적이지 않고 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불공평함을 경험할 때 나타난다.

가족갈등이나 위기가 발생하면 이에 적응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역할이나 형제자매 간의 역할이 재정립된다. 이러한 위기에 적응하는 동안 형제자매들은 어쩌면 가족 위기 조절 기술을 배우고, 가족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책임감 및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여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역동이 특정 자녀에게 성인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그 자녀에게 극단적인 무력감, 과도한 충성심을 느끼게 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rber &

Jenne, 1963; Gath, 1973).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에 부모화된 자녀를 연구해야 할 상담 및 치료적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부모화는 역할에 따라 도구적 부모역할과 정서적 부모역할, 그리고 관계 윤리적 불공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구적 부모역할은 설거지, 청소, 세탁, 심부름, 아픈 부모 및 동생 돌보기, 요리하기 등을 포함하며, 정서적 부모역할은 가족 구성원의 기분을 맞춰 그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또한 관계 윤리적 불공평은 가족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 부담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공정한 관계와 신뢰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가족 내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Byng-Hall, 200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구적 부모화의 역할은 자녀가 어린 동생을 과도하게 돌보거나 집안일을 운영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이는 부모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는 않지만 부모가 돌보지 않는 집안일을 운영하거나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어른의 책임을 떠맡는 것이다(Teyber, 2006).

정서적 부모화의 역할은 가족들을 보호하고, 절친한 친구, 동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갈등 중재, 지지와 양육, 위안 주기 등 아동이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역할은 부모가 그들의 자녀를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며, 애정이나 우정과 같은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할 때 발생한다. 부모가 자녀를 '최상의 친구'나 '의지대상' 혹은 '매우 특별한 밀접한 관계'로 부모-자녀를 묘사하는 경우, 다른 성인들을 통해 동료관계에서 충족되어야 할 것을 자녀를 통해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 윤리적 불공평이란 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한 개인은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은 확실히 적응적이지만 자신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에 몰두할 때, 상호보완성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이선지, 2008).

Boszormenyi-Nagy(1987)는 파괴적인 아동기 부모화는 가족들 사이의 윤리적인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부모화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자녀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나이에 맞지 않은 부모역할, 배우자역할, 친구역할, 동반자역할을 장기간 하게 될 때 파괴적 부모화가 발생된다. 아동기에 부모화를 겪었던 부모는 미성

속하게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나 의존을 하게 되고, 자녀가 부모나 배우자 역할을 할 경우 이 자녀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자아정체감 발달의 어려움, 부모와의 애정관계 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파괴적 부모화가 발생된다.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가정뿐 아니라 빈곤가정, 일중독이나 맞벌이 가정, 편부모, 재결한 가정, 이혼이나 별거 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질병이 있거나 장애를 가진 부모의 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를 하는 가정에서 더 자주 발생된다. 파괴적 부모화 과정은 어린나이에 아동들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거나, 고생스러운 생활의 연속일 때, 우울과 스트레스가 내면화되면서 진행된다. 부모화의 발생요인은 개인 심리적인 요인, 가정 환경적인 요인, 사회 역사적인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Jurkovic, 1997).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미루어볼 때, 부모의 부재 경험이나, 부모의 질병의 유무 여부 등의 원가족 변인이 부모화의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관계적 자기 인식

자기(self)란 신체와 정신조직을 포함하는 실제 개인의 인격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순간성과 영속성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 개념이다(방희정, 2007). 또한 인간 행동의 여러 측면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 타인과의 관계 등을 이끌기도 한다. 그런데 자기는 대인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성숙하며 변화하므로, 자기를 관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Graziano(1997)는 자기관 상황의 직접적인 요구를 개인의 성향과 인생 경험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행복 연구의 중요한 변인이라 주장하면서, 개별성-관계성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이 때 개별성은 자기-타인의 관계에서 자기 쪽에 비중을 두어 자기와 타인을 분명히 분리하고 남과 다른 독특한 정체감의 추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관계성은 타인 쪽에 비중을 두는 개념으로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 및 상호의존적 통합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두 개념은 전 생애에 걸쳐 변증법적으로 발달하는 변인으로, 개별성-관계성의 적절한 조화와 통합이 성숙한 심리적 발달에 필수적인 중요한 과정이 된다고 설명했다(정은의, 2006에서 재인용). 그동안 서구문화에서 자기를 보는 관점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에 초점을 둔 관점이었는데 최근에 발달심리학과 가족 치료 분야에서는 자기를 보다 관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기 시작했다. 즉,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관계적 자기 인식을 탐색하면서 자율성과 힘(power), 타인과의 연결/단절이

관계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Fishbane, 2001).

이상에서 관계적 자기 인식은 맥락 특수적이라기보다는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양식이 여러 다양한 관계 맥락에서 비교적 일관성 있게 일반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족과의 초기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대인관계 양식, 상호작용 패턴의 장기적인 영향으로 관계적 자기 인식이 형성, 발달, 유지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의식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방희정 등(2007)의 '관계적 자기 인식' 개념으로 개인의 대인관계 양식을 구성하고자 한다. Chen 등(2006)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한 역할과 지위를 정의하는 관계적 자기 인식은 중요한 타인과의 맥락에서 경험한 속성과 역할에 기본을 둔 자기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적 자기 인식에는 정서적 요소, 목표, 동기, 자기조절 전략, 행동 전략 등이 포함된다. 즉, 관계적 자기 인식은 단일하고 통합된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다원적이고 구성적인 특성을 갖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의 기대를 자기-이행적으로 실행하면서도 여러 맥락 속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기 때문에 다면적인 관계적 자기 인식 표상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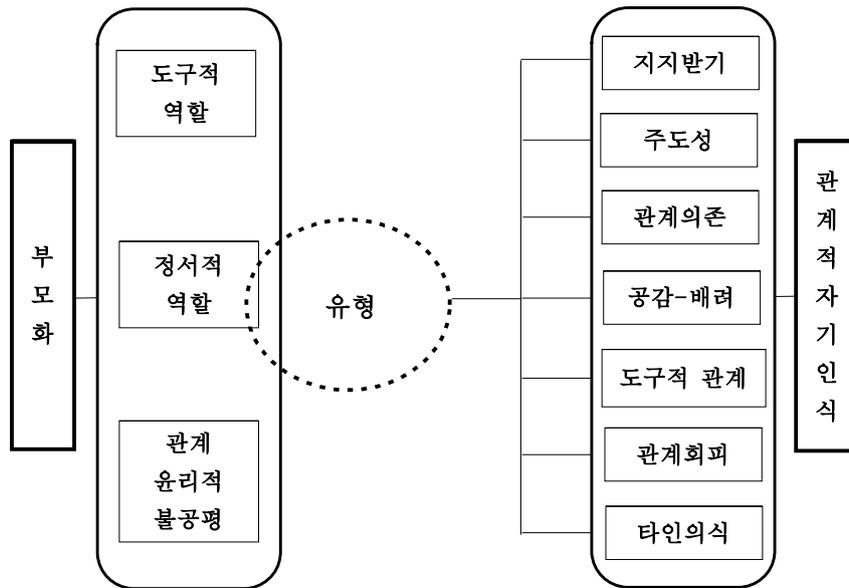
조운경(2003)은 관계적 자기 인식에 대한 연구에서 한국인 고유의 자기 개념과 관계양식을 '나의식'과 '우리의식'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에서 나의식의 개념은, 개별적인 자기의식으로서 기본적으로 독립성의 측면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관계지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관계성의 측면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자기와 타인간의 경계가 강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나의식은 독자적 자신의 모습과 관계성의 측면이 포함된 총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모화 경험에 따른 대인관계의 전반적인 양상과 자기의 측면을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관계적 자기 인식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려고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에 따른 관계적 자기 인식을 알아보려고 하는 본 연구의 연구 목적을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서울 및 경기지역 소재 3개 대학, 충청지역 소재 2개 대학, 호남지역 소재 1개 대학을 포함한 총 6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73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문항에 답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717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학교의 선정은 서울 및 경기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에서 임의 표집 하였으며, 선정된 학교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사 실시 전 연구의 취지나 응답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협조를 부탁한 후 질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측정도구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조사대상자의 성별, 나이, 학년, 가족형태, 형제/자매의 수와 출생순위, 부모의 교육 수준, 가정형편의 정도, 부모와의 별거 경험의 유무 및 기간, 부모의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의 유무 등에 관한 정보를 탐색하는 자기보고식 문항들이다.

## 2) 부모화 척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된 자녀를 구분하기 위해 Sessions와 Jurkovic(1986)이 개발한 부모화척도(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Q)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며, 예라고 대답한 문항 수를 더하여 부모화 정도를 나타내므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42문항의 질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응답하기 애매한 문항 2개를 제외하고 40문항을 이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부모화 척도의 하위요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도구적 역할을 구성하는 문항은 가족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했는지, 가족이 조언을 청했는지, 가족 안에서 자신의 몫보다 더 많이 하도록 요구받았는지, 가족을 육체적으로 돌보는 것에 책임을 졌는지, 요리나 빨래 등의 집안일을 했는지, 가족의 금전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을 도왔는지 등을 묻는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정서적 역할을 구성하는 문항은 가족들 사이에서 심판인 것처럼 느꼈는지, 부모님의 갈등 상황에서 그들의 편에 들도록 요구되어졌는지, 가족 안에서 어린아이 보다는 어른인 것처럼 느꼈는지, 가족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자신이 휘말리거나 자신 때문이라고 걱정했는지 등을 묻는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관계 윤리적 불공평으로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상호관계가 편안하지 않으며, 가족 내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았는지, 가족들 중에서 자신만 소외되었는지 등을 묻는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화 척도의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69~.80으로 나타났으며, 부모화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3) 관계적 자기 인식 척도

관계적 자기 인식 척도(Relational Self Scale: RSS)는 방희정 등(2007)이 한국인의 독특한 관계적 자기 인식을 다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한 31개 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지지 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 회피, 타인 의식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6점)’까지 리커트(Likert) 6점 척도 상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점에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측정된다.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 점수를 계산하여 전체 대인관계 양식의 패턴(프로파일)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이를 통해 관계적 자기 인식의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관계적 자기 인식 척도의 하위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지 받기’의 경우 친밀한 관계에서 위로나 지지를 받는지,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와 같은 내용으

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은 경우, 사람들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정서와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은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주도성'의 영역은 상대방과의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밝히는지 여부와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감추는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변인이 점수가 높은 경우,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기주장을 잘 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 의존'의 영역은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는지, 자신의 가까운 사람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 경우, 자신을 배제한 채 타인에게 초점을 두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하려하는 관계 맺기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해석한다. '공감-배려'의 변인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는지 여부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그에 연관된 정서를 대리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이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이타적 행동의 경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적 관계'영역은 유능하거나 파워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는 않는지, 자신의 경력과 장래에 도움이 될 폭넓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 지향적이며, 성취를 향한 행동에 초점을 둔 개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관계 회피' 영역은 자신이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편인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회피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타인 의식' 영역은 자신이 남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좋게 봐주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등을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상황과 관계에 따라 자신을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눈치 보거나 자기 제시와 같은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자기 인식 척도의 하위 영역별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77~.86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적 자기 인식 척도의 전체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alpha$ )는 .89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9.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각각의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별 신뢰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실시하였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관계적 자기 인식에 대한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화의 하위요인(도구적 역할, 정서적 역할, 관계 윤리적 불공평)들을 토대로 유사성에 따라 조사대상을 몇 개의 집단으로 묶기 위해 비계층적 군집분석(K-means)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모화 유형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와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화 유형에 따라 관계적 자기 인식의 각 하위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학생의 경우 363명(50.6%), 여학생은 354명(49.4%)이었다. 가족특성의 경우, 먼저 형제 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68명(6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3명이상이 162명(22.6%)으로 많았으며 외동 57명(7.9%), 4명이상 30명(4.2%)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309명(43.1%)으로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였고 막내라고 응답한 경우가 283명(39.5%)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운데라고 응답한 경우는 이보다 적은 64명(8.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외동은 61명(8.5%)으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에서 먼저 아버지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377명(52.6%), 대학교 졸업 220명(30.7%), 대학교 졸업 이상 84명(11.7%), 중학교 졸업 36명(5%)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442명(61.6%), 대학교 졸업 179명(25.0%), 대학교 졸업 이상 61명(8.5%), 중학교 졸업 35명(4.9%)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전반적인 교육수준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대학교졸업 이상의 고학력에 해당되는 비중은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부모와의 별거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243명(33.9%)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별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부모와의 별거 기간을

알아본 결과 1년 미만인 16명(6.6%), 1년~5년 미만인 136명(56.0%), 5년~10년 미만인 68명(27.9%)으로 분포를 보였고,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23명으로 9.5%에 해당하는 비율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만성 질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8.4%에 해당하는 60명이었고, 나머지 657명(91.6%)은 ‘없다’라고 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17)

변수		N(%)	변수		N(%)	
성별	남	363(50.6)	부 학력	중학교 졸업	36(5.0)	
	여	354(49.4)		고등학교 졸업	377(52.6)	
학년	1학년	146(20.4)	모 학력	대학교 졸업	220(30.7)	
	2학년	172(24.0)		대학교 졸업 이상	84(11.7)	
	3학년	262(36.5)		중학교 졸업	35(4.9)	
	4학년	137(19.1)		고등학교 졸업	442(61.6)	
종교	기독교	196(27.3)	성장기 가정 형편	대학교 졸업	179(25.0)	
	천주교	45(6.3)		대학교 졸업 이상	61(8.5)	
	불교	54(7.5)		잘사는 편	80(11.2)	
	없음	399(55.6)		보통	497(69.3)	
기타	기타	23(3.3)	어려운편	140(19.5)		
	형제 수	외동	57(7.9)	현재 가정 형편	잘사는 편	70(9.8)
		2명	468(65.3)		보통	481(67.1)
		3명	162(22.6)		어려운편	166(23.1)
4명이상		30(4.2)	가족 형태		부모+자녀	463(64.6)
출생 순위	외동	61(8.5)		한 부모+자녀	92(12.8)	
	첫째	309(43.1)		3세대 (조부모+부모+자녀)	86(12.0)	
	가운데	64(8.9)		조손 (조부모+자녀)	55(7.7)	
	막내	283(39.5)	기타	21(2.9)		
부모와 별거 경험	있음	243(33.9)	부모와 별거 후 동거인	모	66(27.1)	
	없음	474(66.1)		부	24(9.9)	
부모와 별거 기간	1년 미만	16(6.6)		모, 형제(자매)	71(29.2)	
	1년 ~ 5년 미만	136(56.0)		부, 형제(자매)	18(7.4)	
	5년 ~ 10년 미만	68(27.9)		조모 혹은 조부	14(5.8)	
	10년 이상	23(9.5)		형제(자매)	18(7.4)	
부모 만성 질환 여부	있음	60(8.4)		친척	22(9.1)	
	없음	657(91.6)		기타	10(4.1)	

## 2.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독립변수로 설정한 부모화는 도구적 역할, 정서적 역할, 관계 윤리적 불공평으로 나뉜다. 부모화 점수의 총 평균은 0.61점이며, 부모화를 도구적 역할, 정서적 역할, 관계 윤리적 불공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도구적 역할의 총 평균은 0.48점, 정서적 역할의 총 평균은 0.50점, 관계 윤리적 불공평의 총 평균은 0.53점이다.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보다 관계 윤리적 불공평의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대학생들은 보통 수준의 부모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설정한 관계적 자기 인식은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의식으로 나뉜다. 관계적 자기 인식의 총 평균은 3.62점이며, 관계적 자기 인식 변인을 지지받기, 주도성, 관계의존, 공감-배려, 도구적 관계, 관계회피, 타인의식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평균은 지지 받기 4.58점, 주도성 3.86점, 관계의존 3.68점, 공감-배려 4.33점, 도구적 관계 2.87점, 관계회피 3.73점, 타인의식 3.88점으로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

(N=717)

	변수	M	SD	점수 범위	최저점	최고점	문항 수
부모화	도구적 역할	0.48	0.22	0-1	0	8	8
	정서적 역할	0.50	0.18	0-1	2	13	13
	관계 윤리적 불공평	0.53	0.22	0-1	2	17	19
관계적 자기 인식	지지받기	4.58	0.71	1-6	7	24	4
	주도성	3.86	0.64	1-6	7	29	5
	관계의존	3.68	0.72	1-6	7	23	4
	공감-배려	4.33	0.69	1-6	9	24	4
	도구적 관계	2.87	0.30	1-6	4	12	5
	관계회피	3.73	0.87	1-6	4	24	4
	타인의식	3.88	0.53	1-6	7	30	5

### 3. 부모화 하위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

대학생이 경험한 부모화의 하위 요인에 따른 군집의 유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응답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조사대상자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분류하기 위해 먼저 부모화의 하위 척도를 표준화시켜 워드 방식(Ward's method; Ward's, 1963)과 제곱 유클리디안거리(Squared Euclidian distances)를 사용하여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후 군집화 일정표에 제시된 각 단계별 계수(Agglomeration coefficients)값의 변화를 바탕으로 3개 군집을 선택하였으며, 선정된 3개의 군집수를 가지고 비계층적 군집분석(nonhierarchical K-means analysis)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집단을 결정하였다. 군집수의 결정은 군집들의 크기가 고르게 분산된 정도와 군집들 간의 유사성이 최소화된 정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3개의 군집을 발견하였다.

표 3은 3개의 군집과 각 군집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요인 및 상대적 크기, 그리고 군집간의 평균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3개의 군집 간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군집명은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이는 요인의 특성에 기초하여 각각 '도구·불공평형', '정서·불공평형', '도구·정서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군집(a)는 도구적 역할이 0.80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관계 윤리적 불공평 역할이 0.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a)는 다른 집단에 비해 도구적 역할이 높으면서 관계 윤리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불공평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b)는 정서적 역할이 0.6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관계 윤리적 불공평 역할은 0.60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형(b)는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역할이 높으면서 관계 윤리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서·불공평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c)는 세 집단 중 가장 많은 수인 281명이 속해 있고 다른 집단에 비해 관계 윤리적 불공평 영역은 가장 낮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도구적 역할은 0.97, 정서적 역할은 0.5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유형(c)는 관계 윤리적 불공평함은 덜 느끼지만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혼합하여 하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정서형'으로 명명하였다.

&lt;표 3&gt; 부모화의 하위 요인에 따른 조사 대상자 유형 분류

(N=717)

요인 \ 유형	군집(a) M(SD)	군집(b) M(SD)	군집(c) M(SD)	F값	Duncan Test
요인 1 도구적 역할	0.80 (.43)	0.48 (.69)	0.97 (.49)	67.19***	c/a/b
요인 2 정서적 역할	0.41 (.56)	0.64 (.66)	0.58 (.68)	416.01***	b/c/a
요인 3 관계 윤리적 불공평	0.48 (.51)	0.60 (.65)	0.29 (.57)	434.07***	b/a/c
군 집 명	도구· 불공평형 n=215	정서· 불공평형 n=221	도구· 정서형 n=281		

\*\*\* $p < .001$ 

#### 4. 부모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다음에서는 부모화 하위요인에 따라 군집별로 세분화된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4는 부모화 하위요인에 따른 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분석 결과, 성별( $x^2=19.60$ ,  $p < .001$ ), 형제 수( $x^2=50.61$ ,  $p < .001$ ), 출생순위( $x^2=33.09$ ,  $p < .001$ ), 부의 교육수준( $x^2=21.48$ ,  $p < .01$ ), 가족형태( $x^2=57.58$ ,  $p < .001$ ), 현재 가정형편( $x^2=17.70$ ,  $p < .01$ ), 부모와 별거경험( $x^2=10.02$ ,  $p < .01$ ), 부모와 별거 기간( $x^2=151.38$ ,  $p < .001$ ),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 여부( $x^2=25.80$ ,  $p < .001$ )의 9가지 특성에서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부모화의 유형에 따른 성별을 살펴보면,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남학생이 126명(58.6%)으로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정서·불공평 유형의 경우 여학생이 138명(62.4%)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형제 수에서 살펴보면, 세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형제 수는 2명이었으며, 외동의 경우는 도구·불공평 유형에서 29명(13.5%)으로 가장 높았고, 3명의 경우도 도구·불공평 유형에서 70명(32.6%)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의 경우 도구·불공평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33명

(15.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지만, 세 유형 모두 각 각의 집단에서 첫 째와 막내의 비중이 높은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부의 교육수준에서는 정서·불공평 유형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는다는 비율이 122명(55.2%)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반면 도구·불공평 유형에서는 부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118명(54.9%)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족형태 영역에서는 세 유형에서 모두 '부모와 형제 및 본인'으로 이루어진 2세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조부모와 함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경우가 30명(14%)으로 높았고, 정서·불공평 유형의 경우 부모 중 한 쪽의 부재로 인한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 형태가 62명(28%)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구·정서 유형에서는 부모 모두의 부재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 형태의 경우가 46명(16.4%)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정서·불공평 유형에서는 현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에 해당하는 비율이 64명(29%)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화의 유형에 따라 부모와 별거 경험 유무에 관해서는 도구·불공평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모와의 별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95명(44.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 별거 기간에서는 도구·불공평 유형은 '1년~5년 미만(36명(37.9%))'과 '5년~10년 미만(35명(36.8%))'의 해당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정서·불공평 유형에서는 다른 집단과 달리 '1년~5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44명(55%)로 가장 높았다. 또한 도구·정서 유형에서는 '10년 이상' 부모와 별거 기간을 가진 비율이 23명(29.5%)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여부에서는 도구·불공평 유형에서 34명(15.8%)이 부모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특성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t;표 4&gt; 부모화의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N(%)
변수	변수	도구· 불공평형	정서· 불공평형	도구· 정서형	$\chi^2$
성별	남	126(58.6)	83(37.6)	144(51.2)	19.60***
	여	89(41.4)	138(62.4)	137(48.8)	
형제 수	외동	29(13.5)	20(9.0)	8(2.8)	50.61***
	2명	110(51.2)	127(57.5)	221(78.6)	
	3명	70(32.6)	64(29)	38(13.6)	
	4명이상	6(2.7)	10(4.5)	14(5.0)	
출생순위	외동	33(15.4)	20(9.0)	8(2.8)	33.09***
	첫째	91(42.3)	91(41.2)	127(45.2)	
	가운데	14(6.5)	29(13.1)	21(7.5)	
	막내	77(35.8)	81(36.7)	125(44.5)	
부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0(4.7)	9(4.1)	17(6.0)	21.48**
	고등학교 졸업	108(50.2)	90(40.7)	128(45.6)	
	대학교 졸업	72(32.5)	96(43.4)	30(10.7)	
	대학교 졸업 이상	25(11.6)	26(11.8)	106(37.7)	
모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15(6.9)	8(3.6)	12(4.3)	9.68
	고등학교 졸업	120(55.8)	111(50.2)	155(55.2)	
	대학교 졸업	56(26.1)	75(34.0)	79(28.0)	
	대학교 졸업 이상	24(11.2)	27(12.2)	35(12.5)	
가족 형태	부모+자녀	115(53.5)	131(59.3)	201(69.0)	57.58***
	한 부모+자녀	42(19.5)	62(28.0)	22(7.8)	
	3세대 (조부모+부모+자녀)	30(14.0)	18(8.2)	29(10.3)	
	조손 (조부모+자녀)	28(13.0)	10(4.5)	46(16.4)	
과거 가정 형편	잘 사는 편	22(9.4)	20(8.9)	38(13.5)	14.01
	보통	138(64.1)	149(67.4)	200(71.2)	
	어려운 편	55(25.5)	52(23.7)	43(15.3)	
현재 가정 형편	잘 사는 편	33(15.4)	27(12.2)	43(15.3)	17.70**
	보통	131(60.9)	130(58.8)	187(66.5)	
	어려운 편	51(23.7)	64(29.0)	51(18.2)	
부모와 별거 경험	있음	95(44.2)	80(36.2)	78(27.8)	10.02**
	없음	120(55.8)	141(63.8)	203(72.2)	

변 수		도구· 불공평형	정서· 불공평형	도구· 정서형	$\chi^2$
부모와 별거 기간	1년 미만	13(13.7)	10(12.5)	16(20.5)	151.38***
	1년 ~ 5년 미만	36(37.9)	44(55.0)	31(39.7)	
	5년 ~ 10년 미만	35(36.8)	19(23.8)	8(10.3)	
	10년 이상	11(11.6)	7(8.7)	23(29.5)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여부	있음	34(15.8)	14(6.3)	12(4.3)	25.80***
	없음	171(84.2)	217(93.7)	269(95.7)	
합계		215(100.0)	221(100.0)	281(100.0)	

\*\* $p < .01$ , \*\*\* $p < .001$

### 5. 부모화 유형별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

다음의 표 5는 부모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구분된 세 개의 유형별로 관계적 자기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일곱 개의 영역 중 관계의존( $F = 10.14, p < .001$ ), 공감배려( $F = 35.56, p < .001$ ), 관계회피( $F = 27.34, p < .01$ ), 타인의식( $F = 9.79, p < .01$ )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부모화의 유형별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 검증

( $N = 717$ )

요인 \ 유형	도구· 불공평형(a) M(SD)	정서· 불공평형(b) M(SD)	도구· 정서형(c) M(SD)	F값	Duncan Test
지지받기	4.08(0.71)	4.65(0.67)	4.52(0.71)	1.98	
주도성	3.99(0.71)	3.89(0.58)	3.85(0.62)	2.86	
관계의존	3.78(0.64)	3.75(0.74)	3.52(0.77)	10.14***	ab/c
공감배려	4.45(0.73)	4.88(0.68)	4.31(0.66)	35.56***	b/ac
도구적 관계	1.69(0.32)	1.74(0.30)	1.71(0.27)	2.10	
관계-회피	3.67(1.13)	4.10(0.99)	3.94(0.95)	27.34**	b/c/a
타인의식	4.65(0.94)	4.10(1.10)	3.74(0.94)	9.79**	bc/a
합계	n=215	n=221	n=281		

\*\* $p < .01$ , \*\*\* $p < .001$

사후검증결과, 도구·불공평 유형, 정서·불공평 유형이 관계의존 요인에서 도구·정서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불공평 유형이 공감배려 요인에서 도구·불공평 유형, 도구·정서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불공평 유형, 정서·불공평 유형, 도구·정서 유형은 각 각 관계회피 요인에서 모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타인의식 요인에서 정서·불공평 유형, 도구·정서 유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구·불공평 유형은 관계의존 영역에서 관계적 자기 인식이 높았으며, 정서·불공평 유형은 공감-배려, 관계회피, 타인의식 영역에서 관계적 자기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화 경험에 따른 관계적 자기 인식을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가족상담서비스 개발과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상담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의 하위영역에 따른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관계 윤리적 불공평은 다소 높으며, 정서적 역할은 중간 수준 정도이고, 도구적 역할은 중간 수준보다 낮다. 또한 관계적 자기 인식의 하위 영역에 따른 전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지지받기와 공감-배려 영역은 높은 수준이며, 타인의식, 주도성, 관계회피, 관계의존 영역은 중간 수준보다 높으며, 도구적 관계 영역은 중간 수준보다 낮다.

먼저 부모화의 하위영역 중에서 관계 윤리적 불공평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불공정성을 많이 느끼는 부모화된 자녀들이 높은 갈등적 수준, 낮은 자기주장성과 높은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을 나타냈다는 선행연구(김경미 외, 2006)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적 자기 인식의 하위 영역에서는 지지받기와 공감-배려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들의 경우 성장기에 부모와 자녀의 역할 전이로 인하여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책임감을 가질 경우 강박적인 배려 성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 (Hooper, 2007; Tompkins, 2007)와 이렇게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 특성이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고,

부모의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수행을 잘 해내는 유능한 아이로 강화 받을 수 있다는 조은영(2004)의 연구 결과를 통해 그 관련성을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은 ‘도구·불공평형’, ‘정서·불공평형’, ‘도구·정서형’의 3개의 집단으로 분류된다. 각 집단별 특성을 살펴보면, 도구·불공평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도구적 역할이 높고 관계 윤리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정서·불공평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정서적 역할이 높으면서 관계 윤리적으로 불공평함을 느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구·정서형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관계 윤리적 불공평 영역이 가장 낮게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관계 윤리적 불공평함은 덜 느끼지만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혼합하여 경험 하고 있는 복합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 부모화 집단은 도구적 역할과 정서적 역할을 떠맡게 되면서 불공평함을 크게 인지하는 집단(도구·불공평형, 정서·불공평형)과 부모화 역할이 과도한 상황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공평에 대한 인지가 낮은 집단(도구·정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Jurkovic(1997)의 연구에서 파괴적 부모화와 상황 적응적 부모화의 구분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부모화의 유형은 도구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집단과 정서적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집단 그리고 혼합되어 나타나는 집단으로 구분되지만, 그러한 부모화에 대해서 불공평을 인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신주연, 2003).

셋째, 부모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 형제 수, 출생순위, 부의 교육수준, 가족형태, 현재 가정형편, 부모와 별거경험, 부모와 별거 기간,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 여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유형에 따라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도구·불공평형 집단에서 남자 대학생이 가장 많고, 정서·불공평형 유형의 경우 여자 대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 보다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이정선, 2011; 이현아, 2011; 문비, 2006; 신주연, 2003)의 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조은영(2004), 손혜미(2008)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부모화 정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화 정도에 따른 성별의 차이가 일관되지 않은 결과는 방법론과 표집을 고려한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성역할에 대한 한국 문화의 정황을 고려한 시각에서의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형제 수는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외동의 경우와 3명의 경우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최근에 현대 사회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수가 급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생순위에서는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외동이 가장 높았지만, 정서·불공평의 경우 가운데가, 도구·정서 유형의 경우 막내가 비율이 높았다.

부의 교육수준에서는 정서·불공평 유형에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지만 도구·불공평 유형에서의 부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소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기 때문에 학력이 부모화 유형과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가족형태는 세 유형 중 도구·정서형에서 ‘부모와 형제 및 본인’으로 이루어진 2세대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조부모와 함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경우 도구·불공평 유형에서, 부모 중 한 쪽의 부재로 인한 한 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가족 형태는 정서·불공평 유형에서 많다. 또한 부모 모두의 부재로 조부모와 함께 사는 조손가족 형태의 경우는 도구·정서 유형에서 가장 많다.

또한 정서·불공평 유형에서는 현재 가정 형편의 경우 어려운 편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경제 수준이 어려운 환경의 가족 내에서 자녀는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적인 중재와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지만, 부모나 형제에게 자신을 수용, 이해, 지지 받고 싶은 욕구는 채워지지 않아 불공평함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언급한 손혜미(2008)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부모와 별거 경험 유무에서는 도구·불공평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모와의 별거 경험이 있는 경우가 높게 나타난다. 즉,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의 경험을 포함한 부모 부재 경험이 있는 자녀들이 가족의 안정을 위해서 도구적 역할을 하면서 노력하지만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경험은 많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혼 가정이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모자 가정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에 머무르고 있고, 모자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결손으로 인한 위험 뿐 아니라 빈곤과 같은 사회 환경적 위험에도 쉽게 노출됨을 생각할 때, 이러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다차원적 개입방식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부모와 별거 기간은 정서·불공평 유형에서 다른 집단과 달리 ‘1년~5년’에 해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도구·불공평 유형에서는 ‘5년~10년 미만’기간의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도구·정서 유형에서는 '1년 미만'과 '10년 이상'의 부모와 별거 기간을 가진 비율이 가장 높다.

부모의 만성질환 및 장애여부는 도구·불공평 유형에서 부모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특성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높다.

이는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의 자녀의 경우 자신의 욕구는 도외시되고, 가족관계 안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는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장기질환을 앓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에게 욕구표현을 할 기회를 억압하게 되고, 반대로 의젓함을 과장하여 인정받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 특히 부모가 아프면 자신의 발달적 욕구와 충돌된 죄책감과 같은 감정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표본의 수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므로 결과의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부모화 유형별 관계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계적 자기 인식의 일곱 개의 영역 중 '관계의존', '공감-배려', '관계회피', '타인의식'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구·불공평형과 정서·불공평형의 유형은 관계의존 영역에서 도구·정서 유형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Jurkovic(1997)의 연구에서 파괴적 부모화와 상황 적응적 부모화의 구분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도구·불공평 유형과 정서·불공평 유형은 파괴적 부모화의 혼합 형태로 강박적 배려심과 함께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정서·불공평 유형은 공감-배려 영역에서 도구·불공평 유형, 도구·정서 유형과는 달리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정서·불공평 유형이 다른 두 유형에 비해 타인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과 그에 연관된 정서를 대리적으로 공유하는 능력이 높으며, 타인과 관계를 맺는 이타적 행동의 경험이 높음을 시사한다. 관계회피 영역에서는 세 유형모두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관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회피하는 경향이 부모화된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향을 보여주는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도구·불공평 유형의 집단은 타인의식의 영역에서 정서·불공평 유형, 도구·정서 유형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도구·불공평 유형의 경우 다른 두 유형과 달리 부모 혹은 가족들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부분이 다소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한계점을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

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 충청지역, 호남지역 총 6곳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을 고려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부모화 유형과 관계적 자기 인식을 측정하여 이 연구를 확장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는 모두 자기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했을 수 있다. 또한 부모화된 자녀들이 사용하는 방어기제 중 하나인 유아화 및 Winnicott의 '거짓자기'를 가려내지 못하였을 수 있다(Jurkovic, 1997; Winnicott, 1953). 그러므로 앞으로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화 하위요인에 따라 대학생들이 경험한 부모화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실제적으로 부모화의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지만, 부모화라는 변인과 관계적 자기 인식 변인 모두 인식 차원에서의 변인이기 때문에, 실제 행동 특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변인들에 대한 행동적 측정치와 인식적 측정치를 모두 살펴봄으로써 양적 및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의 부모화 유형에 따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들이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특성을 가진 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부모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선행연구의 대부분이었던 이자 관계와의 상관연구에서 더 나아가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다차원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본 연구결과가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혹은 집단상담 서비스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적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김경미·이하나·정주리·정현주·이기학. 2006. “갈등적 독립수준, 자기주장성,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으로 살펴본 부모화의 하위 집단별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3(1): 19-32.
- 김신희. 2007.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창·손영미·박정열. 2002. “발달 단계로서의 ‘철들기’의 문화심리학적 분석.” 『중앙대학교 학생생활연구』 27: 257-283.
- 문 비. 2006. “부모화 경험인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숙. 2009. “세대전수 메커니즘으로서의 가족희생양 연구(미간행).”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희정·윤진영·김아영·조혜자·조숙자·김현정. 2007. “한국 성인의 관계적 자기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3): 23-63.
- 손혜미. 2008. “부부갈등이 대학생 자녀의 부모화 경험에 미치는 영향(미간행).”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주연. 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미간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수·오경자. 2004.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577-594.
- 이정선. 2011.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우울과 신체화에 미치는 영향 : 자기위로능력의 조절효과검증(미간행).”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의. 2006. “사회경제적 요인과 기혼여성 행복 간 관계: 개별성-관계성의 조절효과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미간행).”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미간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43-62.
- 최현미. 1997. “원가족 척도 연구: 결혼 초기 부부를 중심으로(미간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erman, W. H. and Sperling, M. B. 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427-440.
- Boszormenyi-Nagy, I. 1987. “*Foundations of contextual therapy.*” New York: Brunner / Mazel.
- Boszormenyi-Nagy, I. and Framo, J. L. 1965. “Intensive Family Therapy.” *Journal of Analytical Psychology* 12(1): 86-89.
- Boszormenyi-Nagy, I. and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with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 Chase, N. D., Deming, M. P. and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 Couillard, G. C. 1990. “*Differences in marital adjustment among couples with similar and dissimilar levels of emotional health in their family-of-origi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righam Young University.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ng-Hall’s theory of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rocess*, 41(3): 551-555.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es.*” New York: W. W. Norton.
- Farber, B. and Jenne, W. C. 1963. “Family organiz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7): 3-78.
- Fishbane, M. D. 2001. “Relational narratives of the self.” *Family process* 40(3): 273-291.
- Gath, A. 1973. “The school-age siblings of mong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3: 161-167.
- Graziano, W. G., jensen-Campbell, L. A. and Finch, J. F. 1997. The self as a mediator between persona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392-404.
- Hooper, L. M. 2007. “Expanding the discussion regarding parentification and its varied outcom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research and practice.”

-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9: 322-337.
- Hooper, L. M., Marotta, S. A. and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parentif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 693-705.
- Horowitz, L. M. and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6: 443-469.
- Jurkovic, G. J. 1997. *Lo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Mazel.
- Jurkovic, G. J., Jesse, E. H. and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302-314.
- Jurkovic, G. J., Thirkield, A. and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Minuchin, S. 1974. *Family and family therap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m. and Gariti, P. 1993. "Symbolic loss in horizontal relating: Defining the role of parentification in addictive destructive relationship."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5: 197-208.
- Sessions, M. W. and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s."*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artmen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laza, Atlanta, GA 30303.
-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 113-123.
- Teyber, E. 2006. *International process in therapy: An integrative model(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Valleau, M. P., R. M. Bergner, and C. B. Horton. 1995. "Parentification and caretaker syndrome: An empirical investigation." *Family Therapy* 22(3): 157-163.
- Wells, M., & Jones, R. A.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19-227.

## Abstract

### A Study of the Relational Self Awareness Based on the Type of Parentifi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Lee, Hye Young, Sangmyung University*

*Choi, Youn Shil,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the features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experienc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sub-factors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and the difference in their relational self awareness.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nducted a study involving 717 students attending universities in Seoul, Gyeonggi, Honam, Chungcheong regions in the following order. Research was conducted via questionnaire, using a Parentification scale and a Relational Self Awareness scale. Data analysis produced the researcher classified the student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according to similarity through K-means based on the sub-factors of parentification. And the researcher explored the difference in the students' relational self-awareness depending on their parentification type.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experiences recorded the highest in ethical, unequal aspects. The three types classified depending on the sub-factors of parentification, 'instrument·inequality type', 'emotion·inequality type', and 'instrument·emotion typ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four of the sub factors of relational self awareness, 'relation dependency', 'sympathy-consideration', 'avoiding relation', and 'awareness of others.' These results car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rriage and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 type of parentification, relational self awareness